

‘중대본의 행정조치를 강력 규탄한다!’

7월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교회’의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예배 사이도 찬송가와 통성기도를 지양하라고 했다. 물론 정 총리의 발표가 예배금지주의 미화하는 않는다.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방역에 더욱 최선을 다하지는 의미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힘에도 일부교회에서 방역망이 틀리는 모습을 보여 송구스러울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는 오해의 여지를 넘어 대단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미래목회포럼(대표 고명진 목사, 이사장 오정호 목사)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표현한다.

하나, 교회는 결코 코로나19의 기해지도, 감염의 전파지도 아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그 어느 단체보다 가장 모범적인 방역을 실시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를 요구될 때,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까지 정부의 방침에 선제적인 태도를 취했다. 성도들의

개인위생은 물론이고, 교회의 방역에 있어서도 많은 재정과 인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왔다. 전체 확진자 중 교회로 인해 감염된 수가 얼마나 되는가?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방역을 실시해왔음을 자부한다. 정 총리와 정부는 교회가 마치 전염병의 온상이 된 것처럼 치부하는 것을 즉각 사과해야 한다.

둘, 정부는 종교편향적인 태도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통합과 협력이어야 한다. 국가는 종교들 사이에서도 균형을 유지시켜야 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편향적인 태도가

없도록 중재역할을 해야만 한다. 정부는 이번 조처에 대해 결코 종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정 총리의 발표 후에 있었던 정은경 중대본부장의 발표(‘필요하면 성당과 사찰로 확대할 것’)는 충분히 오해받을 만한 발표였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사찰과 성당 등 여타 종교시설을 통해서도 확산되고 있음을 왜 묵과하는가?

셋, 교회는 계속해서 국가의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국가적 위기의 때마다 고통을 분담하며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주도적으

로 감당해 왔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의 70% 이상을 책임지며 사랑실천의 최전방에서 국가의 협력자 역할을 톡톡히 감당해 왔다. 그 덕분에 교회는 국가의 협력 파트너일 수 있었다. 그럼에도 교회를 마치 전염병의 진원지인 것처럼 공격하는 정부의 태도는 신뢰에 대한 배신행위나 다름없다. 더욱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참여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교회와의 협력 관계를 깨고 위협하겠다는 것으로 부어 해석되지 않는다. 이번 코로나19의 고통은 다시 한번 전 국

민이 하나가 되어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듯, 교회 역시도 정부와 협력하여 방역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정부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를 탄압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할 때, 코로나19는 반드시 조기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와 함께 손을 붙잡을 것인지, 협력의 발목을 붙잡을지, 정부의 선택을 주목하겠다!

2020년 7월 9일
미래목회포럼 대표 고명진 목사,
이사장 오정호 목사

■ 감리교회바로세우기 젊은 목회자 연대 성명서

감리교회 목회자가 케어축제에서 무엇을 축복하려는 것입니까?

어머니 같은 감리교회를 아파게 하지 말라

지난 2018년 인천케어문화축제조직위는 인천케어문화축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인천케어문화축제조직위는 인권의 사각지대, 이부밍전, 전국최고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인천에서 지워지고 배제당해 온 성소수자를 위하여 인천케어 문화 축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천은 인권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사는 곳이고, 인천은 망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더 충격적인 것은 ‘전국 최고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인천에서 성소수자들이 지워지고 배제당했기 때문에 케어축제를 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후, 교회는 인천을 복음의 전조까지 삼아 지역발전과 인재교육에 앞장섰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인천의 곳곳에 기독교의 공헌이 묻어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를 폄하하며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취지문은 동성애를 반기독교정서의 도구로 삼아 교회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교세가 크고 영향력이 있는 교단이 어디입니까? 인천에서 어머니와 같은 교단은 감리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인천케어축제 조직위의 성명은 인천의 모든 교회를 향한 공격일 뿐 아니라, 그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감리교회를 향한 공격이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31일 제2회 인천케어축제에서 황명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리교회를 공격하고 매도했던 케어축제에 감리교회의 한 목회자가 축복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그것도 동성애 반대

복해야 할 감리교회 목사가 인천케어축제에서 축복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축복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데, 교리와 장정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케어축제 참가자들은 감리교회를 모독하고 있는데, 감리교회 목회자가 무엇을 축복하려는 것입니까? 이동환 목사가 할 일과 과연 감리교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2018년 인천 케어축제 현장에서는 감리교회 성도들이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다쳤으며, 부족한 이 사람들 수갑을 차고 체포되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는 감리교회의 두 명의 청년이 케어 차량에 손을 크게 다쳐서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2019년 인천 케어축제현장에도 많은 감리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감리교회 이동환 목사가 축복식을 거행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에 기독교대한감리교회의 젊은 목회자들은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첫째 이동환 목사는 감리교회가 목회자의 허물을 안기 위하여 내민 손길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라!

둘째 만약 이동환 목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기연회 재판위원회는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의 법대로 분명하게 처리하라!

셋째 이동환 목사를 지지하는 일부 선배목사들과 후배목사들은 더 이상 교단을 어지럽히지 말고, 자중하라!

넷째 감리교회는 앞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 합당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제지하라!

2020년 7월 7일
감리교회바로세우기 젊은 목회자 연대

■ 전국 감리교 원로 목사회 성명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어기는 신성모독죄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문명사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르크시즘이 열풍을 일으켰으나 구소련과 동유럽이 망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듯했으나, 마르크시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인류의 문명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쯤 POSTMODERNISM 시대라고 하는데 인류 역사상 잘못된 3가지 혁명이 있다. 1789년 프랑스 혁명과 1917년 소비에트 불세키 혁명과 1968년 성혁명이다. 그런데 3가지 공통점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1789년 프랑스 혁명 후에 노르망디 성당에 십자가를 제거하고 헬라의 여신상을 세우고 성직자들과 성도들 20만 명을 죽이고 처형했다. 그 바탕에서 칼 마르크스가 나오고 니체가 나와서 신은 죽었다고 했으며 독일의 공산당을 창당한 안도니오 그라시니가 나왔다. 1917년 소비에트에서는 레닌이 불세키 혁명을 일으키고 땅에서는 자본가를 축출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축출하려고 하면서 교인들과 부자들까지도, 모두 2,700만 명을 죽였다. 1968년 자유, 관용, 평등이란 슬로건 하에 성 윤리, 성 개념, 가족 개념을 해체하고 성혁명을 주장하면서 모든 종교는 동일하며 절대적인 하나님을 잠신으로 폄하하며 태도한 것이 POSTMODERNISM이다.

젠더의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존 머니와 성혁명을 주장한 빌헬름 라이히와 성개념 성윤리 가족개념의 해체를 주장한 루이 알튀세르와 해방신학을 주장한 알랑 바디우 같은자들이 그림자의 제자들이요 철저한 신공산주의 자들이다. 그들의 꿈이 있다면 오직 교회 파괴이고 교회를 해체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결혼합법화가 된 23개국 나라마다 모두 문제가 심각하다. 미국 오리건 주에서 동성결혼 커플에게 케익을 만들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고발당해서 135,000불의 벌금이 나왔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동성애 가르치는 시간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다고 했더니 고발당해서 아버지가 구속이 되었다. 하와이 UMC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했다가 고발당해서 목사가 출교가 되었다. 노상에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전도했다가 고발당해 구속이 되었다. 이처럼 동성애 합법화 베푸는 기독교 탄압의 의도가 숨어 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통과되어 10년 만에 영국에 13,000 곳의 교회가 문을 닫고 대부분의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 신공산주의자들이 자유, 인권, 차별금지 등 감언이설로 사람을 속여서 파멸로 이끌고 갈 때, 교회 지도자들이나 팔을 붙여서 성도들을 깨워야 되는데 전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기독교인은 삶의 척도가 성경이요 생활 지침이 성경이다. 세상 법보다는 교회를 우선하고 교회법이나 장정보다 성경이 우선한다. (마 5:18, 히 13:8, 례 18:22, 례 20:13, 례 1:26-27 등) (창 1:27-28)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신성모독죄에 해당 한다. 남녀 간 음행도 안 되는데 창조 질서를 어기는 죄를 옳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잘못된 것이다.

(잠 8:1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약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는 나라

(마 5:13)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하고는 썩는 세상에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이동환 목사와 함께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은 감리교회에서 떠나기를 촉구한다.

2020년 7월 7일
전국 감리교 원로 목사회 일동
대표 박상혁 감독

목양時事

이효상 원장 // 근대문화진흥원장, 한국교회건강연구원장

교회세움, 건강한 교회가 로드맵(road map)이다

한국교회는 지난 60년 동안 교회의 목표를 ‘성장’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왔다. 그러다보니 사회정의 실현과 민주적 생활양식 함양을 등한시하며 대형교회로 급성장했다. ‘성장’의 정점을 지난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장’에서 ‘건강’으로, ‘발전’보다 ‘회복’과 ‘세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의 위기속에서 어떤 교회를 세울 나갈 것인가. 그런데 최근 수년간 대다수의 교회나 목회자들이거나 할 것 없이 건강한 교회를 지향한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딱히 ‘건강한 교회’라 말하기도 뭐한 경우도 있다. 비정상적이면서 정상을 말하는 것과 같다. 비탄’을 가지고 ‘건강’이라고 우기면 곤란하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회세움’이나 ‘건강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막연하거나 말이 다르다면 이는 한번쯤 개념정리나 논의가 필요한 사제이다.

그래서인지 1997년 이후 세미나와 집회에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강연을 하면,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된다. 건강한 교회에 대한 기초나 근거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과 건강한 교회의 표지는 어떤 것인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의 참모습은 어떤 것인가? 참 교회의 표지들(marks of the church)이란 그것이 있으면 교회이고,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들

을 칭한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일을 하면 그저 ‘교회’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진다. 본래 교회는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교회의 기초는 ‘바른 신앙고백’이다. 이를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가’이다. 우리가 느끼고 좋다고 판단하는 것 중심으로 ‘건강한 교회’를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 감성적으로 은혜스럽다고 느끼는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오류에 빠져선 안된다. 재정의 투명성이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일관적인 상식선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운영된다고 꼭 건강한 교회라 판단해서도 안된다. 판단의 기준이 ‘성경적인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첨부해서 다른 것을 붙이게 되면 이단이나 사이비일 가능성이 오히려 커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건강한 교회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교회의 존재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원이거나 학원이나 고아원, 양로원을 세움이나 ‘교회 세움’이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통치해나

신다. 한국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의 모습을 재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처럼 성경에 근거해 성경적 복음에 충실한 교회만이 ‘교회’이다. 개혁신의교회라면, 복음의 바른 선포를 교회의 표지로 삼아야 한다.

또한 주님께서는 ‘믿는 이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신실한 시행이 교회의 표지이다. 성찬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가는 일을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도록 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정상적으로 잘 되지 않을 때 심지어 사랑하는 심정으로 벌을 주어서라도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처리(治罪)인데, 이를 교회의 표지라 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다. 예배가 순전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추구해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등을 육성하여 인간들의 취향과 감성을 자극하거나 흥행을 고려하는 것이 앞서지 않아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해 가는 교회임이 더 중요하다.

더 나아가 크리스천들이 부르신 곳,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답게 주께서 맡겨주신 일

들을 삶 속에서 바르게 행하며 받은 은혜와 은사를 따라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헌신하므로 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가정과 학교, 직장, 일터지역에서,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평신도 일터지역의 모델들을 발굴하고 나와야 한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에 교회가 같이 참여해야 한다. 이것은 시대에 감동해야 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의 한 부분이다.

주님의 부르신 소명은 다르지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은 분명 ‘사랑’이다. 그 사랑은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감당하지 않는다 면 결코 건강한 교회나 건강한 성도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쩌보면 모든 성도는 다 거룩한 직분자다. ‘평신도’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다. 그것은 기능상의 차이요, 직분이 든 아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 일을 수행하면, 그 자체가 ‘성직’이다.

건강한 교회는 일상에서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이룬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생명공동체이다. 조직이나 행정이나 교육 등 모든 활동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이가 동등하고, 모든 직분이 동등하다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현실로 드러내야 한다. ‘직

분’은 특권이나 명예가 아니라 주님과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를 ‘섬김’이다. 교회 일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가 가장 중요하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 되는 것이 ‘함께’이다.

오늘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다음세대’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믿게 된 분들을 잘 양육하는 것과 더불어 다음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현실적 문제에 급급하여 다음세대의 교육, 다음세대 교회의 현재보다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일을 등한히 하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정신 차려 기독교 문화를 흘러보내는 일에 힘써야 한다.

‘교회세움’의 기초는 다른 말로 ‘교회’의 ‘건강성’이다. 변화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생존성’이자 ‘건강성’이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회생태계이다.

한국교회건강연구원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매년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될 만한 교회를 선정하고 목회자를 발굴하여 소개하려 한다. 이는 ‘교회세움’에는 ‘교회다움’과 ‘목회자다움’ ‘성도다움’이 전제된 건강한 교회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어쩌 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앙 행태가 알곡과 가리지

로 나누어졌다. 136년 만의 예배를 중단하는 참담함을 보며 너무도 서글퍼서 통곡했다. 아할왕 때 바벨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종들이 있었다. 이 시대도 그런 시대 아닌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나와야 한다. 세상권력이나 여론에 아첨하지 아니하고 교회 본연의 신앙과 예배모습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사실 절긴 생명력을 지닌 건강한 교회상(像)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여부이다. 즉 깨뜨리는 기도의 불을 다시 피우는 기도사역, 성경의 말씀을 용기있게 선포하는 설교사역,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사역, 병든 세상과 이 땅을 치유하는 사역을 전제로 한다. 더 나아가 공교회성을 지닌 목회사역의 아름다운 계승과 교회의 공적 사회적 책임, 기독교 문화로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교회의 모습 등을 주목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 위기속에서 이단과 사이비들의 사교화로 인한 피해를 보며 이런 한국교회의 공공성은 더욱더 절실히 요청되어 진다. 건강한 교회를 지향한다고 문제점은 없는가? 그렇지 않다. 이 땅 교회에는 문제점이 너무 많다. 각자의 이권과 자리요에 갈등과 분열하는 모습은 어쩌 보면 시험을 기 꼭 짊어. 코로나 위기가운데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공동체의 연결, 연합에 한국교회는 하나 되는 네트워크를 도모해야 한다. 항상 문제가 있기에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지극하므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코로나시대 건강한 교회의 가장 효과적인 일은 목회자 교회가 교회됨에 비로써 그런 빛을 이세상에 비추며, 하나되는 일이다.